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81호 [루게 제 24329호] 주제 102 (2013)년 10월 8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재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박태성동지, 황병서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을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연구소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연건축면적이 6,100여㎡이고 연구소청사, 연구용버섯재배실, 원료창고 등으로 이루어진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는 버섯재배공업화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에 따라 건설된 버섯연구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맛있고 영양가 높은 버섯을 우리인민들에게 더 많이 먹이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현대적인 버섯연구소건설을 발기하시고 그 파업을 인민군대에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심장깊이 새긴 군인건설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불과 3개월 남짓한 기간에 버섯연구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지도속에서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훌륭히 실현되고 버섯연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갖춘 버섯연구소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일떠섬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연혁소 개실을 돌아보신 다음 각종 연구실들과 실험실들, 전자도서관, 제품보관실, 버섯재배장 등 연구소의 여러곳에 들리시



여 건설정형과 연구사업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우리 당의 주제적인 건축미학사상에 맞게 버섯연구소건설을 훌륭히 완공한데 대하여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러 연구 및 실험실들과 버섯재배장은 물론 사무실, 기본청사와 보조청사를 련결하는 외랑, 현판부, 휴식장 등 모든 요소들을 그 어디

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특색있게 건설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의도대로 버섯연구소의 무진화를 실현하고 지열에 의한 난방체계를 도입하였으며 현대적인 실험기구들과 설비들을 그준하게 갖추었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버섯기질발효기를 비롯하여 연구사업과 버섯재배에 필요한 설비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설치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의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지금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버섯생산바람이 일어나고있으며 전국도처에 능력이 큰 버섯공장들과 버섯생산기지들이 꾸러지고있다고 하시면서 버섯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실현하

려면 과학연구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연구소에서는 여러가지 식용 및 약용버섯재배기술을 연구완성하고 지역특색에 맞게 기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며 버섯재배에 필요한 균종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버섯생산단위들에 대한 과학기술지도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버섯연구 및 재배와 관련한 자료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그것을 해당 단위들에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앙버섯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자들이 높은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연구소를 인민들이 실질적인 덕을 보게 하는 과학연구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하게 정말 잘 건설했다고, 군인건설자들이 일을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앙버섯연구소건설을 당창건기념일까지 끝낼데 대하여 지시하였는데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것을 제일화한 인민군대이기에 거어이 해냈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혁명군대의 본래이라고, 인민군대에 맡긴 보람이 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중앙버섯연구소건설을 통하여 당이 부르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달려나가 결사관철하고야마는 인민군대의 고유한 모습, 당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다시금 과시하였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를 돌아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의 지휘관들, 연구소의 일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태양의 빛발속에 주체의 당기발은 힘차게 나뭇긴다

10월의 하늘가에 우리의 당기가 나뭇기 있었다.

혁명과 인민을 이끌어 력사의 언덕들을 넘고 헤쳐며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기발을 우러를 때면 붉은 기폭속에서 위대한 태양의 모습이 빛발쳐온다.

자신의 한생을 다 바치시어 우리모두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삶의 보람과 행복을 쫓아주시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끝없는 영광과 번영을 기약해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친근하신 모습.

오늘도 당보에는 천만군민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었다.

이 땅의 남너로소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우리 당의 력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 건설업적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친근하고 영명하신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는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오늘도 사무치는 그리움에 젖어있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노자로 강화발전 시키고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결실한 령도자이시며 희세의 정치원로이십니다.》

잊지 못할 16년전의 10월 8일 온 나라가 해운는 바다처럼 설레이었다. 그것은 력사의 의지였고 인민의 절절한 의사와 철석같은 신념의 뚜렷한 파시였다. 우리 당력사에서 뚜렷한 봉우리를 이루는 민족적대승정이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

조선로동당 대표회들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불같은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적령도자의 품도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신다.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를 배후시어 전체 인민을 굳게 묶어세우시고 온 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었으며 이 땅에 숭고한 도덕의리의 새 력사를 펼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끌어오신 30여성상의 혁명활동로정은 백두만령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계승자, 당과 인민의 결출한 령도자의 가장 성스럽고 영광찬란한 력사이다. 위대한 장군님이시자말로 정치에서 로속하고 군사에서 비범하며 경제와 문화에 박식하고 외교에서 원숙하며 인간적으로 다정다감하고 위인중의 위인, 령장중의 령장이다. ...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었음을 선포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특별보도를 받아안는 끝없는 영광과 소원성취의 순간 온 나라의 당원들과 인민들은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있고 피눈물의 언덕에서부터 흘러온 3년간을 돌이켜보았다.

얼마나 존엄하고 간고한 시련을 우리가 헤쳐왔던가.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와 지구를 휩쓴 반사회주의의 광풍,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포위와 끊임없이 덮쳐드는 자연재해...

동유럽나라들의 붕괴에서 우리 인민이 느낀것은 령도자를 잘못 만나면 당이 변질되고 당이 무너지면 사회주의가 붕괴되어 인민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비참한 처지에 굴러떨어진다것이였다.

하여 우리 인민은 내 조국의 푸른 하늘에 높이 휘날리는 조선로동당의 당기, 백두에 휘날린 붉은 기폭에 마치와 닮, 북을 아로새긴 우리 당의 기발을 더욱 소중히, 더욱 경건하게 우러렀다.

세기의 격랑을 헤쳐가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선로동당은 곧 위대한 장군님이시였고 김정일동지는 곧 어머니 우리 당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시었기에 력사의 풍운속에서도 우리 당기발의 색조는 변색없이, 탈색없이 붉게 타번졌으며 더욱 힘차게 나뭇기게 되였다.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뜻깊은 말씀이 귀전에 울려온다.

《나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지만 당을 떠나서는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창건하시어 나에게 넘겨주신 위대한 당입니다.》

당을 선군혁명의 강력한 참모부로 강화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89(2000)년 10월

발전시키고 당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뭉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가든 시련을 헤쳐가시었다.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고 당원들과 인민들을 대고 조선군에 불러들여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반제국전쟁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억척같이 고수하고 강성

국가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제끼게 되였다.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고난의 시기일수록 우리 당이 어머니당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실험은 그 열매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언제인가 우리

당기발을 들어주시고 높이 휘날리신 위대한 장군님,

조선로동당기는 진정 김정일동지의 붉은 기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10월 8일이 있어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영광이 누리에 찬란한 오늘 10월 10일도 있다.

하기에 뜻깊은 10월의 이날을 맞는 천만

인민이라면 그가 누구이로 당에서 책임지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주고 보살펴주고 사회에 내세워주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주어 영원한 삶을 빛내여주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정 책이며 자신의 인간철학의 핵이라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느해 자신의 탄생일에 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나는 올해에 인민생활문제를 풀 결 심을 하였습시다. 인민들이 당을 하늘처럼 믿고 있는데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도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처럼 좋은 인민은 세상에 없 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부족함이 많지만 다 리해하고 참고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적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 사랑의 후더운 정과 열에 의하여 간고한 시기에 자 농사혁명, 두벌농사의 포성이 새차게 울려 먹는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열 려고 조선은 걸실하면 한 다는 김정일시대의 격언이 우리 조국의 현실로 되였다. 조국의 하늘가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몰 려들어도 장군님의 선군길 이 있어 온 나라의 해빛같은 곳에 자리잡은 학교들에서는 배움의 글소리가

랑랑히 울리고 학단 등산 모를 쓴 우리의 아이들은 명산정수들에 꾸러진 야 영소들로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떠나갔다.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 까지 어머니수령님께서

부끄럼 없이 당의 당기발을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당기발아래 우리 군대는 조국의 자 주적존엄과 평화를 억척같이 지켜가고있으며 인민은 창조와 로동으로 강토를 넓혀 갔다. 하늘에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에는 오곡이 무르익고있으며 공장에는 비 약의 기운이 태동하고 곳곳마다에 위대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기속에 계시며 태양의 빛발로 우리 조국의 앞날에,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영원한 명산정수들에 꾸러진 야 영소들로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떠나갔다.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 까지 어머니수령님께서

부끄럼 없이 당의 당기발을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당기발아래 우리 군대는 조국의 자 주적존엄과 평화를 억척같이 지켜가고있으며 인민은 창조와 로동으로 강토를 넓혀 갔다. 하늘에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에는 오곡이 무르익고있으며 공장에는 비 약의 기운이 태동하고 곳곳마다에 위대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기속에 계시며 태양의 빛발로 우리 조국의 앞날에,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영원한 명산정수들에 꾸러진 야 영소들로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떠나갔다.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 까지 어머니수령님께서

부끄럼 없이 당의 당기발을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당기발아래 우리 군대는 조국의 자 주적존엄과 평화를 억척같이 지켜가고있으며 인민은 창조와 로동으로 강토를 넓혀 갔다. 하늘에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에는 오곡이 무르익고있으며 공장에는 비 약의 기운이 태동하고 곳곳마다에 위대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기속에 계시며 태양의 빛발로 우리 조국의 앞날에,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영원한 명산정수들에 꾸러진 야 영소들로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떠나갔다.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 까지 어머니수령님께서

부끄럼 없이 당의 당기발을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당기발아래 우리 군대는 조국의 자 주적존엄과 평화를 억척같이 지켜가고있으며 인민은 창조와 로동으로 강토를 넓혀 갔다. 하늘에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에는 오곡이 무르익고있으며 공장에는 비 약의 기운이 태동하고 곳곳마다에 위대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기속에 계시며 태양의 빛발로 우리 조국의 앞날에,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영원한 명산정수들에 꾸러진 야 영소들로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떠나갔다.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 까지 어머니수령님께서

부끄럼 없이 당의 당기발을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당기발아래 우리 군대는 조국의 자 주적존엄과 평화를 억척같이 지켜가고있으며 인민은 창조와 로동으로 강토를 넓혀 갔다. 하늘에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에는 오곡이 무르익고있으며 공장에는 비 약의 기운이 태동하고 곳곳마다에 위대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기속에 계시며 태양의 빛발로 우리 조국의 앞날에,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영원한 명산정수들에 꾸러진 야 영소들로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떠나갔다.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 까지 어머니수령님께서

부끄럼 없이 당의 당기발을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당기발아래 우리 군대는 조국의 자 주적존엄과 평화를 억척같이 지켜가고있으며 인민은 창조와 로동으로 강토를 넓혀 갔다. 하늘에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에는 오곡이 무르익고있으며 공장에는 비 약의 기운이 태동하고 곳곳마다에 위대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기속에 계시며 태양의 빛발로 우리 조국의 앞날에,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영원한 명산정수들에 꾸러진 야 영소들로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떠나갔다.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 까지 어머니수령님께서

부끄럼 없이 당의 당기발을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당기발아래 우리 군대는 조국의 자 주적존엄과 평화를 억척같이 지켜가고있으며 인민은 창조와 로동으로 강토를 넓혀 갔다. 하늘에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에는 오곡이 무르익고있으며 공장에는 비 약의 기운이 태동하고 곳곳마다에 위대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기속에 계시며 태양의 빛발로 우리 조국의 앞날에,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영원한 명산정수들에 꾸러진 야 영소들로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떠나갔다.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 까지 어머니수령님께서

부끄럼 없이 당의 당기발을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당기발아래 우리 군대는 조국의 자 주적존엄과 평화를 억척같이 지켜가고있으며 인민은 창조와 로동으로 강토를 넓혀 갔다. 하늘에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에는 오곡이 무르익고있으며 공장에는 비 약의 기운이 태동하고 곳곳마다에 위대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있다.

《아마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위대한가 물어보면 첫번째는 어머니를 꼽을것이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한 번 따끔하게 타일러주 고는 다시 그것을 입밖 에 꺼내지 않는다. 이것은 결함을 범하였다가 자기를 진심으로 꾸우치고 다시 본래의 위치에서 사임하게 된 한 당원군의 가식없는 고백이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바로 여기에 혁명의 길에 하나의 전사 뒤엎어 쳐도 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을 휘날리던 대오에 세워 주는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가 어려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군들은 넓은 사상관점과 뒤엎어진 사업기풍, 일본새와 단호히 결별하여야 합니다.》 1970년대 중엽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느 한 군당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임 하다가 파오를 범하고 공장에 나가 일하고있는 일군에 대하여 료해 하시었다. 그 일군으로 말하면 70일전투가 한창이던 때에 농촌건설용으로 나가는 차체를 조금씩 돌려 계획외에 공사를 벌려놓았으며 건설을 당장 중지하라는 요구도 무시한것으로 하여 강한 비판을 받았다. 왜 농민들에게 분화주먹을 지어 출생자를 못했는가, 이것이 과연 인민을 위하여 부무할데 대한 당의 의도에 어긋난다는것을 몰랐는가하고 하는 날카로운 비판을 받고있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으며 자신을 단단히 혁명화할 결심을 하고 그날 밤 잠을 꾸며서 일한적이 있는 기계공장으로 동계급속으로 들어 갔다. 그 일군은 로동자들의 손을 잡고 있는 우리 당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야, 당을 받드는 마음이 티없이 깨끗한 로동 계급의 충실성을 배우겠으니 잘 도와달라고 진심을 터놓았으며 전직관념을 다 버리고 모든것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자기의 결심과 그로 로동자들과 한가마 밥을 먹으며 남보다 일찍이 공장에 나와 일을 시작하였고 힘든 일에 출신 야개를 들이대었다. 로동자들속에서 그에 대한 평이 아주 좋았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참 기쁜 소식을 받았다고, 70일전투때 계획외의 공사를 하다가 되게 비판을 받은 군당책임일군에 공장에 내려가 일을 잘한다면 반가운 소식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매우 만족해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다시 군당책임일군으로 사임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 주시었다. 얼마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느 한 협회에서 계획외의 공사를 벌려놓았던 그 책임일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본래의 사업을 맡기자는 일군이 없었지만 자신께서는 그가 진실으로 파오를 꾸우 치기때문에 다시 그곳에서 일하도록 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후 그는 활기에 넘쳐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고 언제나 공장파 농촌에 나가 대중의 앞장에서 야개를 들이밀고 일을 제끼곤 하였다. 이러한 그를 두고 사람들속에서는 《우리 군당책임일군은 일본새도 달라졌다.》《우리 군당 책임일군을 만나려면 공장이나 농촌에 나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지난날 파오를 범하였던 사람이 위대한 장군님의 원칙적이고 따뜻한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대중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어머니당의 참다운 일군으로 소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식의 성장을 두고 언제나 마음쓰는 어머니와도 같이 그 일군의 그후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잊지 않고있고 자기의 마음쓰신분은 어머니장군님이시였다. 언제 한번 만나본적이 없으셨지만 그 일군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사업에서 고충은 없는지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느해 여름 현지지도의 길에서 또다시 그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그날 저녁 늦은 무더위를 무릅쓰고 산골마을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책임일군의 사업에 대하여 료해하시었다. 그가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일을 잘하고있다는것을 아시고는 해당 일군에게 그러면 좋다고 환히 웃으시면서 그 동무의 사업을 계속 잘 도와주어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은 혁명 동지로 귀중히 여기시고 그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 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한없이 따사로운 품속에서 우리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 갈수 있었다. 하기에 그 책임일군도 자식들은 어머니가 곁함을 타일려주면 그것을 용감하게 고쳐나가게 된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시는 충고는 전사들에게 대한 믿음의 표식라고 자기의 심정을 절절히 토로하였던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혁명의 지휘성원들로 어엿하게 자라난 일군이 어찌 그 하나뿐이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같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건설장들마다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소리 높이 울리며 힘차게 내달리는 일군들이 있어 우리의 진격속도는 더욱 빨라지고있다. 본사기자 백영미

참다운 일군으로 소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식의 성장을 두고 언제나 마음쓰는 어머니와도 같이 그 일군의 그후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잊지 않고있고 자기의 마음쓰신분은 어머니장군님이시였다.

언제 한번 만나본적이 없으셨지만 그 일군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사업에서 고충은 없는지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느해 여름 현지지도의 길에서 또다시 그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그날 저녁 늦은 무더위를 무릅쓰고 산골마을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책임일군의 사업에 대하여 료해하시었다.

그가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일을 잘하고있다는것을 아시고는 해당 일군에게 그러면 좋다고 환히 웃으시면서 그 동무의 사업을 계속 잘 도와주어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은 혁명 동지로 귀중히 여기시고 그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 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한없이 따사로운 품속에서 우리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 갈수 있었다.

하기에 그 책임일군도 자식들은 어머니가 곁함을 타일려주면 그것을 용감하게 고쳐나가게 된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시는 충고는 전사들에게 대한 믿음의 표식라고 자기의 심정을 절절히 토로하였던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혁명의 지휘성원들로 어엿하게 자라난 일군이 어찌 그 하나뿐이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같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건설장들마다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소리 높이 울리며 힘차게 내달리는 일군들이 있어 우리의 진격속도는 더욱 빨라지고있다.

본사기자 백영미

발견시키고 당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뭉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가든 시련을 헤쳐가시었다.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고 당원들과 인민들을 대고 조선군에 불러들여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반제국전쟁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억척같이 고수하고 강성

국가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제끼게

되였다.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고난의 시기일수록 우리 당이 어머니당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실험은 그 열매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언제인가 우리

당기발을 들어주시고 높이 휘날리신 위대한 장군님,

조선로동당기는 진정 김정일동지의 붉은 기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10월 8일이 있어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영광이 누리에 찬란한 오늘 10월 10일도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 사랑의 후더운 정과 열에 의하여 간고한 시기에 자 농사혁명, 두벌농사의 포성이 새차게 울려 먹는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열 려고 조선은 걸실하면 한 다는 김정일시대의 격언이 우리 조국의 현실로 되였다. 조국의 하늘가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몰 려들어도 장군님의 선군길 이 있어 온 나라의 해빛같은 곳에 자리잡은 학교들에서는 배움의 글소리가

랑랑히 울리고 학단 등산 모를 쓴 우리의 아이들은 명산정수들에 꾸러진 야 영소들로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떠나갔다.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 까지 어머니수령님께서

부끄럼 없이 당의 당기발을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당기발아래 우리 군대는 조국의 자 주적존엄과 평화를 억척같이 지켜가고있으며 인민은 창조와 로동으로 강토를 넓혀 갔다. 하늘에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에는 오곡이 무르익고있으며 공장에는 비 약의 기운이 태동하고 곳곳마다에 위대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기속에 계시며 태양의 빛발로 우리 조국의 앞날에,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영원한 명산정수들에 꾸러진 야 영소들로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떠나갔다.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 까지 어머니수령님께서

부끄럼 없이 당의 당기발을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당기발아래 우리 군대는 조국의 자 주적존엄과 평화를 억척같이 지켜가고있으며 인민은 창조와 로동으로 강토를 넓혀 갔다. 하늘에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에는 오곡이 무르익고있으며 공장에는 비 약의 기운이 태동하고 곳곳마다에 위대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기속에 계시며 태양의 빛발로 우리 조국의 앞날에,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영원한 명산정수들에 꾸러진 야 영소들로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떠나갔다.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 까지 어머니수령님께서

부끄럼 없이 당의 당기발을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당기발아래 우리 군대는 조국의 자 주적존엄과 평화를 억척같이 지켜가고있으며 인민은 창조와 로동으로 강토를 넓혀 갔다. 하늘에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에는 오곡이 무르익고있으며 공장에는 비 약의 기운이 태동하고 곳곳마다에 위대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있다.

불패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던 나날에

투사들을 전국각지로 떠나보내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으로 개선하신 직후에 있는 일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을 몸가짜이로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는 한시도 지체없이 혼란된 질서를 수습할것을 요구 하고있던 조국에 돌아와 휴식 도 못한채 각지로 떠나야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로운 열거된 무거운 임무를 같이 자각하고 지방에 나가서 혁명가담 계 사업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리하여 동해안의 각지와 서부지구로 향

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병든 자식, 삼처입은 자식을

찾아내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삼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 이것이 어머니 우리 당의 품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머니가 계시는 곳을 삶의 보금자리라고 부른다.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못 한 일을 완수하고 싶어서 사랑과 정을 주는것을 본능으로 여기는 어머니, 마음속피로움도, 아픈 상처도 스스럼없이 드러내 놓게 되고 설사 매를 들어도 더 많이 안겨줄게 되는 어머니를,

그토록 살뜰하고 정다운 어머니, 어머니사랑이 있는 곳을 우리는 보금자리로 여긴다.

하다면 불우한 인생길을 걷은 인간들, 이 땅에서 머리조차 들 수 없어하던 못난 자식들을 따사로운 품에 안아주고 힘있게 걸어 나갈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안겨

준 고마운 우리 당의 사랑과 과연 무엇에 비길수 있겠는가. 한해가 저물어가던 지난해 1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귀화한 일본인녀성이 삼가 울린 편지를 보시고 그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신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다.

우리 당은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더 깊이 품어 주고 내세우고있다. 자식의 아픔을 놓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며 어루만지고 살점도, 피도 서슴치 않고 주는것이 어머니이다. 자식이 잘되는것을 보며 기뻐하고 그 것을 무엇보다 바랄수 없는 한생의 락으로 여기는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라고 생각된다.

그때서 우리 당을 어머니라고 하는것이다. 리철호동무가 꿈에도 소원하던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데 대하여 그러도 기뻐 하신 어머니의 마음을 이 편지에

넘겨주시 주체의 당기를 들어주시고 높이 휘날리신 위대한 장군님,

조선로동당기는 진정 김정일동지의 붉은 기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10월 8일이 있어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영광이 누리에 찬란한 오늘 10월 10일도 있다.

하기에 뜻깊은 10월의 이날을 맞는 천만

인민이라면 그가 누구이로 당에서 책임지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주고 보살펴주고 사회에 내세워주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주어 영원한 삶을 빛내여주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정 책이며 자신의 인간철학의 핵이라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느해 자신의 탄생일에 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나는 올해에 인민생활문제를 풀 결 심을 하였습시다. 인민들이 당을 하늘처럼 믿고 있는데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도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처럼 좋은 인민은 세상에 없 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부족함이 많지만 다 리해하고 참고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적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 사랑의 후더운 정과 열에 의하여 간고한 시기에 자 농사혁명, 두벌농사의 포성이 새차게 울려 먹는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열 려고 조선은 걸실하면 한 다는 김정일시대의 격언이 우리 조국의 현실로 되였다. 조국의 하늘가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몰 려들어도 장군님의 선군길 이 있어 온 나라의 해빛같은 곳에 자리잡은 학교들에서는 배움의 글소리가

랑랑히 울리고 학단 등산 모를 쓴 우리의 아이들은 명산정수들에 꾸러진 야 영소들로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떠나갔다.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 까지 어머니수령님께서

부끄럼 없이 당의 당기발을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당기발아래 우리 군대는 조국의 자 주적존엄과 평화를 억척같이 지켜가고있으며 인민은 창조와 로동으로 강토를 넓혀 갔다. 하늘에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에는 오곡이 무르익고있으며 공장에는 비 약의 기운이 태동하고 곳곳마다에 위대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기속에 계시며 태양의 빛발로 우리 조국의 앞날에,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영원한 명산정수들에 꾸러진 야 영소들로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떠나갔다.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 까지 어머니수령님께서

부끄럼 없이 당의 당기발을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당기발아래 우리 군대는 조국의 자 주적존엄과 평화를 억척같이 지켜가고있으며 인민은 창조와 로동으로 강토를 넓혀 갔다. 하늘에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에는 오곡이 무르익고있으며 공장에는 비 약의 기운이 태동하고 곳곳마다에 위대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기속에 계시며 태양의 빛발로 우리 조국의 앞날에,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영원한 명산정수들에 꾸러진 야 영소들로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떠나갔다.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 까지 어머니수령님께서

부끄럼 없이 당의 당기발을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당기발아래 우리 군대는 조국의 자 주적존엄과 평화를 억척같이 지켜가고있으며 인민은 창조와 로동으로 강토를 넓혀 갔다. 하늘에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에는 오곡이 무르익고있으며 공장에는 비 약의 기운이 태동하고 곳곳마다에 위대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기속에 계시며 태양의 빛발로 우리 조국의 앞날에,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영원한 명산정수들에 꾸러진 야 영소들로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떠나갔다.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 까지 어머니수령님께서

부끄럼 없이 당의 당기발을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당기발아래 우리 군대는 조국의 자 주적존엄과 평화를 억척같이 지켜가고있으며 인민은 창조와 로동으로 강토를 넓혀 갔다. 하늘에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에는 오곡이 무르익고있으며 공장에는 비 약의 기운이 태동하고 곳곳마다에 위대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기속에 계시며 태양의 빛발로 우리 조국의 앞날에,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영원한 명산정수들에 꾸러진 야 영소들로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떠나갔다.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 까지 어머니수령님께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의 보고

오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심과 우리 당의 불멸성과 양양한 전도에 대한 높은 확신에 넘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6년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정치사변이었으며 령도자와 인민사이 에 맺어진 혼연일체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민족의 대경사였습니다.

우리 당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는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위용될 치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시기 이룩된 공적은 현상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열화같은 총성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동지들!



김기남 동지

조선로동당의 영광찬란한 내대기에 는 우리 당의 창건자인 아버지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하여 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활동력사가 력력히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탁월한 사상과 세련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시고 혁명과 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 앞에 영구불멸한 업적을 쌓아 오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인민들!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체제와 령도체제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는 당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율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업을 만방에 떨치신것은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가장 특출한 업적입니다.》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로 강화발전시키시기를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에 전당에 수령의 사상체제를 세우는데 당사업과 당활동의 주선으로 틀어 쥐고나가도록 하시어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대들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통일을 확고히 보장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전당을 김일성주의의 화합대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오신것은 우리 당을 명실공히 김일성동지의 령도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가 되었습니다.

전당 김일성주의회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정수분자로 만들며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시어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로 하여 우리 당은 전당이 하나와 같이 슬 쉬고 움직이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전변되게 되었습니다.

수령의 사상체제와 령도체제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 인민대중과 혼연 일체를 이루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 강력한 정치군사조직을 가진 불패의 당, 바로 이것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된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기 조선로동당은 힘난한 력사의 폭풍우속에서도 혁명의 불꽃기를 높이 추켜 들고 이 땅위에 세기적인 전변을 안아왔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립장을 고수하여 자주독립을 철저히 관철하였습니다.

주체의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결 론에 따라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해결함으로써 우리 당은 복잡하고 참예한 경제속에서도 파랑우왕을 모고 혁명과 건설을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정신으로 일관된 혁명령도원칙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적근기와 자부심을 비상이 높여왔으며 우리 조국은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으로, 자체의 힘으로 당당하게 해나가는 자주 의 강국, 자주 의 강대국 조 존임을 높이 떨치게 되었습니다.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혁명령도, 대중지도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입니다.

우리 당의 위력한 사상사업, 정치 사업에 의하여 천만군민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나고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 전군, 전민의 일심단결이 반석이 다져져 강력한 혁명의 주체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정시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이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이 날것인 대충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대혁신, 대대비가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최첨단과전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라 지식경제시대가 열리고 경제 구조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만년대기의 기념비적창조물과 사회주의 선경들이 도처에 일떠섬으로써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된것은 우리 당의 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역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정치군사강국으로 거머쥐어 오셨다는것은 당의 선군혁명전략이 안아온 력사의 기적입니다.

당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평화가 보장되고 우리 민족주의의 리념 밑에 전진하는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전대성이 강화되고 나라의 대외관계가 비상이 확대발전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천만군민을 령도하여 류태없는 난관과 시련을 헤쳐 혁명과 건설에서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여온 조선로동당은 오늘 자주시대의 혁명적당으로 그 권위와 불패의 위력을 만방에 높이 떨치고있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김일성동지의 령도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은 세기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역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케 확립하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유순관철을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겠다는 주체혁명위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जु체화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천만군민이 김정일에국주의영령을 세차게 일으키고 21세기의 새로운 일 당백공격속도를 창조해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 생활향상에서는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역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케 확립하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유순관철을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겠다는 주체혁명위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जु체화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천만군민이 김정일에국주의영령을 세차게 일으키고 21세기의 새로운 일 당백공격속도를 창조해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 생활향상에서는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당 건설사상과 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계승발전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원힘을 반영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어 아버지장군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현상면에 깊이 빛내이는 불멸의 공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 천체적인 사상리론 활동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고 이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어 우리 당을 수령의 령도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한 불멸의 기치를 마련하시었습니다.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당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룩해 내는 사상을 비롯하여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부터 당의 조직건설, 사상건설, 령도술건설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은 혁명적당건설의 고귀한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인민들!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체제와 령도체제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는 당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율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업을 만방에 떨치신것은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가장 특출한 업적입니다.》

조선로동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존함과 하나로 잇닿아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력사에 아로새기신 빛나는 업적은 심오한 사상리론으로 조선로동당건설의 가장 훌륭한 지도적지침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일찌기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당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령도적정치조직이라는 철리를 밝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이 사회의 김일성주의의 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어 우리 당을 수령의 령도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한 불멸의 기치를 마련하시었습니다.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당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룩해 내는 사상을 비롯하여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부터 당의 조직건설, 사상건설, 령도술건설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은 혁명적당건설의 고귀한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인민들!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체제와 령도체제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는 당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율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업을 만방에 떨치신것은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가장 특출한 업적입니다.》

조선로동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존함과 하나로 잇닿아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력사에 아로새기신 빛나는 업적은 심오한 사상리론으로 조선로동당건설의 가장 훌륭한 지도적지침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일찌기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당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령도적정치조직이라는 철리를 밝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이 사회의 김일성주의의 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어 우리 당을 수령의 령도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한 불멸의 기치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인민들!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체제와 령도체제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는 당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율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업을 만방에 떨치신것은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가장 특출한 업적입니다.》

조선로동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존함과 하나로 잇닿아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력사에 아로새기신 빛나는 업적은 심오한 사상리론으로 조선로동당건설의 가장 훌륭한 지도적지침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일찌기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당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령도적정치조직이라는 철리를 밝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이 사회의 김일성주의의 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어 우리 당을 수령의 령도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한 불멸의 기치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인민들!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체제와 령도체제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는 당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율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업을 만방에 떨치신것은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가장 특출한 업적입니다.》

조선로동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존함과 하나로 잇닿아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력사에 아로새기신 빛나는 업적은 심오한 사상리론으로 조선로동당건설의 가장 훌륭한 지도적지침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일찌기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당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령도적정치조직이라는 철리를 밝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이 사회의 김일성주의의 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어 우리 당을 수령의 령도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한 불멸의 기치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인민들!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체제와 령도체제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는 당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율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업을 만방에 떨치신것은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가장 특출한 업적입니다.》

조선로동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존함과 하나로 잇닿아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력사에 아로새기신 빛나는 업적은 심오한 사상리론으로 조선로동당건설의 가장 훌륭한 지도적지침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일찌기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당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령도적정치조직이라는 철리를 밝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이 사회의 김일성주의의 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어 우리 당을 수령의 령도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한 불멸의 기치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인민들!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체제와 령도체제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는 당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율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업을 만방에 떨치신것은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가장 특출한 업적입니다.》

조선로동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존함과 하나로 잇닿아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력사에 아로새기신 빛나는 업적은 심오한 사상리론으로 조선로동당건설의 가장 훌륭한 지도적지침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일찌기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당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령도적정치조직이라는 철리를 밝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이 사회의 김일성주의의 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어 우리 당을 수령의 령도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한 불멸의 기치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인 령도에 의하여 새롭게 꾸러진 최첨단기계공장 연료프분공장 건설이 조기화되었습니다.

새로 일떠선 연료프분공장은 최첨단CNC설비를 중추로 하는 현대적인 정밀금속가공설비들로부터 시합정확과 포장, 상표설비에 이르기까지 그 존히 완비되어 통합생산체제가 실현된 하나의 기계공장과 맞닿는 정밀기계제품생산기지이다.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연료프분공장이 새로 일떠섬으로써 높은 수준에 도달한 연료프분공장은 분사구 등을 더 많이 생산시켜 나가는 료전기제품발전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조업식이 7월에 진행되었다. 전술총대장부총리, 리종국기계공업상, 김춘섭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덕문 도인민위

원회 위원장, 관계부서 일군들, 공장종업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조업식에서는 지배인 강은하가 조업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이 나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신사와 호소문을 받들고 일터마다에서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경동적인 시기에 연료프분공장 조업식을 진행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 공장을 찾오시어 현대적인 연료프분공장을 일떠세울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는 연료프분생산공장을 돌아보시면서 료전기제품생산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분공장 조업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밝혀주시면서 최첨단을 통과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도록 결을 결을 이끌어 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한결같이 떨치나 분공장건설을 다그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많은 설비를 비롯한 대상을 들이내고 수천㎡의 기초굴착과 콘크리트타임을 해체전대이 비계철기, 천정판조립, 미장공사 등을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고 말하였다.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혁신적안목과 창조적발견으로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수심대의 절단기계

설비들을 설치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설비들을 애호하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관리운영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유능한 기술인재, 고급기능공들을 양성하며 생산과 경영관리를 과학화하고 통합생산체제를 내게 하는 한편 확대재산을 잘하여 제품의 갱신을 늘리고 질을 끊임없이 향상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강령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업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연료프분공장에 대한 해설을 듣고 생산공정을 들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원리마구역 교창리당위원회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생생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 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력을 쏟아내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종족 작업반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사업에 내세우고 농장의 축산업발전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실 종족작업반은 지난 시기에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의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내긴 하였다. 이 나날 작업반의 국을 듣고 생산공정을 들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원리마구역 교창리당위원회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생생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 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력을 쏟아내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종족 작업반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사업에 내세우고 농장의 축산업발전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실 종족작업반은 지난 시기에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의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내긴 하였다. 이 나날 작업반의 국을 듣고 생산공정을 들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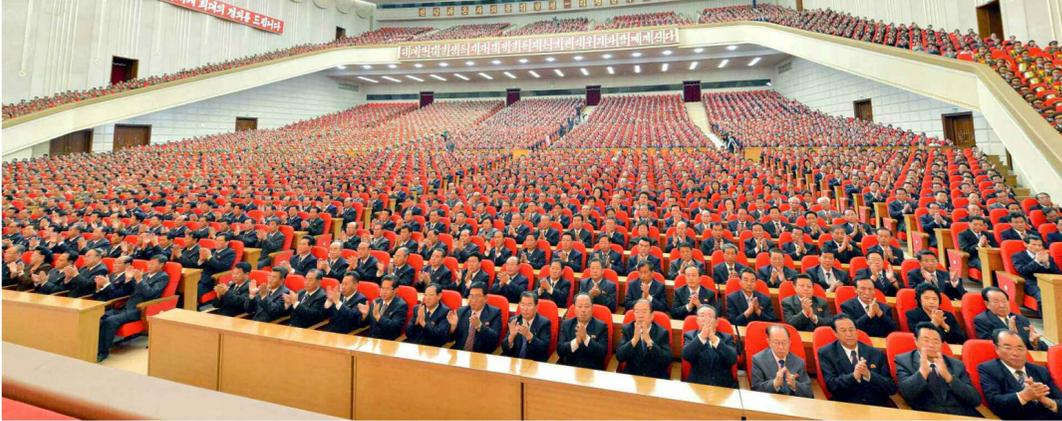
원리마구역 교창리당위원회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생생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 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력을 쏟아내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종족 작업반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사업에 내세우고 농장의 축산업발전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실 종족작업반은 지난 시기에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의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내긴 하였다. 이 나날 작업반의 국을 듣고 생산공정을 들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원리마구역 교창리당위원회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생생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 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력을 쏟아내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종족 작업반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사업에 내세우고 농장의 축산업발전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실 종족작업반은 지난 시기에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의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내긴 하였다. 이 나날 작업반의 국을 듣고 생산공정을 들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원리마구역 교창리당위원회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생생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 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력을 쏟아내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종족 작업반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사업에 내세우고 농장의 축산업발전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실 종족작업반은 지난 시기에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의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내긴 하였다. 이 나날 작업반의 국을 듣고 생산공정을 들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원리마구역 교창리당위원회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생생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 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력을 쏟아내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종족 작업반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사업에 내세우고 농장의 축산업발전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실 종족작업반은 지난 시기에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의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내긴 하였다. 이 나날 작업반의 국을 듣고 생산공정을 들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원리마구역 교창리당위원회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생생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 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력을 쏟아내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종족 작업반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사업에 내세우고 농장의 축산업발전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실 종족작업반은 지난 시기에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의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내긴 하였다. 이 나날 작업반의 국을 듣고 생산공정을 들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원리마구역 교창리당위원회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생생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 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력을 쏟아내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종족 작업반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사업에 내세우고 농장의 축산업발전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실 종족작업반은 지난 시기에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의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내긴 하였다. 이 나날 작업반의 국을 듣고 생산공정을 들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원리마구역 교창리당위원회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생생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 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력을 쏟아내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종족 작업반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사업에 내세우고 농장의 축산업발전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실 종족작업반은 지난 시기에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의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내긴 하였다. 이 나날 작업반의 국을 듣고 생산공정을 들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원리마구역 교창리당위원회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생생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 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력을 쏟아내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종족 작업반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사업에 내세우고 농장의 축산업발전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실 종족작업반은 지난 시기에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의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내긴 하였다. 이 나날 작업반의 국을 듣고 생산공정을 들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희 천정밀기계공장 연료프분공장 조업식 진행

원리마구역 교창리당위원회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생생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 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력을 쏟아내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종족 작업반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사업에 내세우고 농장의 축산업발전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실 종족작업반은 지난 시기에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의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내긴 하였다. 이 나날 작업반의 국을 듣고 생산공정을 들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원리마구역 교창리당위원회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생생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 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력을 쏟아내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종족 작업반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사업에 내세우고 농장의 축산업발전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실 종족작업반은 지난 시기에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의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내긴 하였다. 이 나날 작업반의 국을 듣고 생산공정을 들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원리마구역 교창리당위원회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생생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 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력을 쏟아내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종족 작업반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사업에 내세우고 농장의 축산업발전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실 종족작업반은 지난 시기에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의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내긴 하였다. 이 나날 작업반의 국을 듣고 생산공정을 들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원리마구역 교창리당위원회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생생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 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력을 쏟아내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종족 작업반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사업에 내세우고 농장의 축산업발전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실 종족작업반은 지난 시기에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의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내긴 하였다. 이 나날 작업반의 국을 듣고 생산공정을 들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원리마구역 교창리당위원회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생생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 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력을 쏟아내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종족 작업반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사업에 내세우고 농장의 축산업발전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실 종족작업반은 지난 시기에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의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내긴 하였다. 이 나날 작업반의 국을 듣고 생산공정을 들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원리마구역 교창리당위원회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생생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 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력을 쏟아내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종족 작업반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사업에 내세우고 농장의 축산업발전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실 종족작업반은 지난 시기에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의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내긴 하였다. 이 나날 작업반의 국을 듣고 생산공정을 들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원리마구역 교창리당위원회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생생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 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력을 쏟아내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종족 작업반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사업에 내세우고 농장의 축산업발전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실 종족작업반은 지난 시기에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의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내긴 하였다. 이 나날 작업반의 국을 듣고 생산공정을 들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어머니당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는 인민의 한 마음

그 품 때 나 못 살아!

위대한 평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머니당이라는 말속에는 우리 당에 대한 두려운 신뢰와 함께 장래운명까지 보살피 줄것을 바라는 인민들의 크나 큰 기대가 담겨져있습니다.»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각지의 독자들이 분사편집적으로 수많은 글작품들을 보내오셨다.

사동구역에서 사는 박성일동무는 당창건기념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기를 품에 안아 사랑을 주고 정을 주며 키워준 어머니당의 은정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서정시 2편과 수자풀이시 1편을 보내오셨다.

서정시 <오, 조선로동당이여!>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각지에서 보내여온 글작품들을 보고

우러러 터치는 인민의 진정에 넘친 목소리는 이렇게 세월의 흐름속에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리는 온 나라에 울리게 조선인민군 군관 리원호동무는 가사 <내 인생의 불빛>에서 이렇게 썼다.

푸른 꽃 필차라고 걸음걸음 정을 주고 인생을 꽃피우라고 사랑다해 가꿔주네 별빛없는 밤길에도 나의 앞길 밝혀주는 사랑의 그 미소 내 인생의 불빛이여라

태도 다 맡기고 끝까지 충정다 할 마음은 그가 쓴 가사 <선군의 붓 높이 들리>에도 뜨겁게 비껴갔다.

... 총애와 마지, 닳 잠으며 조국을 알고 신념의 글을 쓰며 당을 따르네 우리 운명 붉은기에 맡기고 사내

...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안겨주기 위한 건설의 대진성기를 펼쳐 가는 어머니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담은 글작품들도 적지 않다.

리원호동무가 보내여온 가사 <우리 자랑 문수거리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위대하여 널리리춤 절로 나내 우리 자랑 문수거리 평양의 자랑일세

만경대구역 서산동 52인민반에서 사는 설인갑로인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품을 당의 품이라고 격조높이 웨치면서 감상글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의 원수님께서 이 땅의 천만군민모두를 한몸에 안으시고 제일동지, 제일전수로 믿어주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고계십니다.

...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선군조선의 태양으로 우러러 받들고있으며 충정을 다하고있는 것입니다.

모신 조선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락관,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로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이 가져다준 필연입니다.»

형제산구역 황창연, 제령군의 옥성만, 락원군의 리용남, 남포시의 차명호, 청진시의 주병윤동무들 역시 <아시령의 새 노래>, <영광의 세월>, <그대를 나는 사랑해>, <행복의 미소>, <인민의 나라>, <우리 사는 조국> 등의 작품들에서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강성국가의 미래를 꽃피워가는 어머니당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노래하며 당의 평등도리에 오늘보다 더 좋아할 선군조선의 태양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잘 반영하였다.

당인 품인 우리 사는 집

대동강구역 청류3동 70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지복로인의 가정은 늘 부르는 한편의 노래가 있다. 가요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이다.

우리는 얼마전 김지복로인의 집을 찾아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온 가족이 근 30년을 이 노래와 함께 살아온 남다른 사연을 알게 되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끝없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머니당입니다.»

김지복로인의 남편이었던 김희섭은 어릴 때부터 노래를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남편이 전선으로 달려나간 12.11.10.에서 싸우면서 전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화선독창가로 사랑받던 김희섭은 그 어느 한 전투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다.

대동강구역 청류3동 70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지복로인의 가정은 늘 부르는 한편의 노래가 있다. 가요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이다.

우리는 얼마전 김지복로인의 집을 찾아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온 가족이 근 30년을 이 노래와 함께 살아온 남다른 사연을 알게 되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끝없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머니당입니다.»

김지복로인의 남편이었던 김희섭은 어릴 때부터 노래를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남편이 전선으로 달려나간 12.11.10.에서 싸우면서 전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화선독창가로 사랑받던 김희섭은 그 어느 한 전투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다.

대동강구역 청류3동 70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지복로인의 가정은 늘 부르는 한편의 노래가 있다. 가요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이다.

우리는 얼마전 김지복로인의 집을 찾아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온 가족이 근 30년을 이 노래와 함께 살아온 남다른 사연을 알게 되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끝없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머니당입니다.»

김지복로인의 남편이었던 김희섭은 어릴 때부터 노래를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남편이 전선으로 달려나간 12.11.10.에서 싸우면서 전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화선독창가로 사랑받던 김희섭은 그 어느 한 전투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다.

내 태어나 처음 번지던 어머니란 딸과 같이 정겨웁고 나를 포근히 안아주던 어머니를 같이 따사로운 아, 우리 당

... 비록 시어는 요란하지 않아도 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천만군민의 진정이 그대로 비껴 흐르는것으로 하여 구절구절을 무심히 대할 수 없다.

이 땅의 한 시민이 격조높이 웨치듯처럼 기쁨 때도 어머니 피로울 때 어머니 반겨어도 구절이든 달랠까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이기고 있을만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라라고 당을

파사른 그 정은 내 가슴에 울려들고 비노나 눈이 오나 그 손길은 곁에 있네 불속에서도 불속에서도 나의 운명 지켜주는 사랑의 그 손길 내 인생의 불빛이여라

세월의 비바람에 산천은 변해도 대를 이어 더해지는 정은 끝 없네 저 하늘의 노을처럼 이 몸 태워가리 사랑의 그 믿음 내 인생의 불빛이여라

어머니 우리 당에 운명도 미

아이들의 오람 평양산원 마추모 행복동이 어서 크라 옥류아동 병원 솟아나네 널리리 춤 절로 나내 우리 당이 고마와 널리리 춤 절로 나내 우리 자랑 문수거리 평양의 자랑일세

... 무엇이 늙음을 이렇게 젊어지게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매일에 대한 락관이며 신심입니다. 대를 이어 수평평, 정공복을 늘려주는 무한한 행복감, 세계가 공인하는 최세의 천출명장을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세상의 이목이 여기 조선에 쏠리고있다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을 품어주고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손길이 인민의 가슴에 희망을 주네

... 위대한 당의 현명만 평등도가 있기에 그 품에 운명을 맡기고 사는 인민이 터치는 다함없는 청춘과 흥모의 노래는 영원히 높이 울려 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박옥 경



온 나라가 잠든 깊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다. 당중앙의 불빛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감정을 불려오는 당중앙창가의 밝은 불빛이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역사의 그날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새우신 밤은 그 열매였는가. 헌신의 그 밤들 파 더불어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장이 펼쳐졌고 이 땅에는 비약의 년대들이 빛났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자기들의 광범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으며 당의 령도가 있는 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반드시 완수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있다.»

당중앙의 불빛을 바라보느라

면 가장 뜨거운 추억이 이 가슴 파고든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명선도, 문학예술과 출판보도부문에서의 일대 혁명,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대진성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정력적인 령도의 닦아

진정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내 조국의 무궁번영, 인민의 행복과 뜨겁게 이어져있는 불빛이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중앙의 불빛을 신심깊이 새겨안고 사는것이다.

그렇다. 꺼질 줄 모르는 당중앙의 불빛, 강성국가의 찬란한 미래를 약속해주는 당중앙의 저 불빛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상징으로, 최후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무궁토록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장철 범

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 강령으로 삼고,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4차 대표자회, 조선로동당 제 4차 세로비서대회 진행...

지금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 수행에서는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단숨에의 기상으로 이 땅에는 전례없는 창조와 건설의 대기념비들이 세워지고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



당중앙의 불빛

밤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의 모습에 그 불빛과 더불어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깊이 새겨졌다. 당중앙의 불빛!

그것은 우리 당의 위대한 지도자상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끝없는 헌신을 말해주는 하나의 시대로 되었다.

하기에 천만민은 당중앙의 불빛을 인민의 삶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로 새겨안는다.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면 가장 뜨거운 추억이 이 가슴 파고든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명선도, 문학예술과 출판보도부문에서의 일대 혁명,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대진성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정력적인 령도의 닦아

진정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내 조국의 무궁번영, 인민의 행복과 뜨겁게 이어져있는 불빛이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중앙의 불빛을 신심깊이 새겨안고 사는것이다.

그렇다. 꺼질 줄 모르는 당중앙의 불빛, 강성국가의 찬란한 미래를 약속해주는 당중앙의 저 불빛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상징으로, 최후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무궁토록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장철 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미국과 피피페당은 <한미동맹강화>를 부르짖으며 위협천한 군사적모의를 빈번히 벌리고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대규모적인 무력시위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고 미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이는 등 전쟁도발책동에 더욱 미쳐나가고있다.

이러한 미국과 피피페군부두머리들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된 제45차 연례안보회의에서는 우리의 <핵 및 탄도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출형역제전략>을 채택하고 전사작전통제권 전환 제언기문제, 련합대비능력강화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맞출형역제전략»은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수단을 동원하여 선제타격을 한다는 위협천만한 핵선제타격으로서 적들의 북침전쟁책동이 무도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최근 미국과 피피페당은 <한미동맹강화>를 부르짖으며 위협천한 군사적모의를 빈번히 벌리고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대규모적인 무력시위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고 미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이는 등 전쟁도발책동에 더욱 미쳐나가고있다.

이러한 미국과 피피페군부두머리들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된 제45차 연례안보회의에서는 우리의 <핵 및 탄도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출형역제전략>을 채택하고 전사작전통제권 전환 제언기문제, 련합대비능력강화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맞출형역제전략»은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수단을 동원하여 선제타격을 한다는 위협천만한 핵선제타격으로서 적들의 북침전쟁책동이 무도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최근 미국과 피피페당은 <한미동맹강화>를 부르짖으며 위협천한 군사적모의를 빈번히 벌리고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대규모적인 무력시위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고 미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이는 등 전쟁도발책동에 더욱 미쳐나가고있다.

이러한 미국과 피피페군부두머리들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된 제45차 연례안보회의에서는 우리의 <핵 및 탄도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출형역제전략>을 채택하고 전사작전통제권 전환 제언기문제, 련합대비능력강화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맞출형역제전략»은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수단을 동원하여 선제타격을 한다는 위협천만한 핵선제타격으로서 적들의 북침전쟁책동이 무도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최근 미국과 피피페당은 <한미동맹강화>를 부르짖으며 위협천한 군사적모의를 빈번히 벌리고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대규모적인 무력시위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고 미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이는 등 전쟁도발책동에 더욱 미쳐나가고있다.

이러한 미국과 피피페군부두머리들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된 제45차 연례안보회의에서는 우리의 <핵 및 탄도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출형역제전략>을 채택하고 전사작전통제권 전환 제언기문제, 련합대비능력강화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맞출형역제전략»은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수단을 동원하여 선제타격을 한다는 위협천만한 핵선제타격으로서 적들의 북침전쟁책동이 무도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최근 미국과 피피페당은 <한미동맹강화>를 부르짖으며 위협천한 군사적모의를 빈번히 벌리고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대규모적인 무력시위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고 미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이는 등 전쟁도발책동에 더욱 미쳐나가고있다.

이러한 미국과 피피페군부두머리들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된 제45차 연례안보회의에서는 우리의 <핵 및 탄도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출형역제전략>을 채택하고 전사작전통제권 전환 제언기문제, 련합대비능력강화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맞출형역제전략»은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수단을 동원하여 선제타격을 한다는 위협천만한 핵선제타격으로서 적들의 북침전쟁책동이 무도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최근 미국과 피피페당은 <한미동맹강화>를 부르짖으며 위협천한 군사적모의를 빈번히 벌리고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대규모적인 무력시위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고 미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이는 등 전쟁도발책동에 더욱 미쳐나가고있다.

이러한 미국과 피피페군부두머리들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된 제45차 연례안보회의에서는 우리의 <핵 및 탄도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출형역제전략>을 채택하고 전사작전통제권 전환 제언기문제, 련합대비능력강화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맞출형역제전략»은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수단을 동원하여 선제타격을 한다는 위협천만한 핵선제타격으로서 적들의 북침전쟁책동이 무도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최근 미국과 피피페당은 <한미동맹강화>를 부르짖으며 위협천한 군사적모의를 빈번히 벌리고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대규모적인 무력시위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고 미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이는 등 전쟁도발책동에 더욱 미쳐나가고있다.

이러한 미국과 피피페군부두머리들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된 제45차 연례안보회의에서는 우리의 <핵 및 탄도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출형역제전략>을 채택하고 전사작전통제권 전환 제언기문제, 련합대비능력강화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맞출형역제전략»은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수단을 동원하여 선제타격을 한다는 위협천만한 핵선제타격으로서 적들의 북침전쟁책동이 무도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최근 미국과 피피페당은 <한미동맹강화>를 부르짖으며 위협천한 군사적모의를 빈번히 벌리고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대규모적인 무력시위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고 미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이는 등 전쟁도발책동에 더욱 미쳐나가고있다.

이러한 미국과 피피페군부두머리들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된 제45차 연례안보회의에서는 우리의 <핵 및 탄도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출형역제전략>을 채택하고 전사작전통제권 전환 제언기문제, 련합대비능력강화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맞출형역제전략»은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수단을 동원하여 선제타격을 한다는 위협천만한 핵선제타격으로서 적들의 북침전쟁책동이 무도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소식

정춘미선수 여자력기경기에서 금메달 쟁취

중국 천진에서 진행되고있는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성과를 거두고있다. 정춘미선수는 7일 여자력기 63kg급경기에서 순간제기와 빠른 추기, 제치있는 련결동작 등으로 끌어올리기에서 97kg, 추쿠를리기에서 129kg을 들어올려 종합 1등을 하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정춘미선수 여자력기 53kg급경기에서 종합 2위를, 김춘미선수는 여자 5000m달리기에서 2위를 하여 은메달을 받았다.

정춘미선수 여자력기 53kg급경기에서 종합 2위를, 김춘미선수는 여자 5000m달리기에서 2위를 하여 은메달을 받았다.

정춘미선수 여자력기 53kg급경기에서 종합 2위를, 김춘미선수는 여자 5000m달리기에서 2위를 하여 은메달을 받았다.

전국도대항체육경기 성황리에 진행

우리 나라 여자축구팀이 중국팀을 1:0으로 이겼다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 우리 나라 팀과 중국팀 사이의 경기가 7일 중국의 천진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와 중국, 중국대륙, 일본팀이 참가한 경기에서는 전련맹전의 방법으로 승위를 결정하게 된다.

완강한 방어와 적극적인 공격으로 일관된 전진전격기는 서로 득점이 없었다.

빠른 리락과 측면돌파, 문전 돌입 등으로 득점기회를 마련하던 우리 선수들이 후반전 30분경 몇몇차례 골을 넣었다.

결국 경기에서는 우리 나라 팀이 중국팀을 1:0으로 이겼다.

우리 나라 팀은 9일 중국대륙팀과 두번째경기를 하게 된다.

정춘미선수 여자력기 53kg급경기에서 종합 2위를, 김춘미선수는 여자 5000m달리기에서 2위를 하여 은메달을 받았다.

정춘미선수 여자력기 53kg급경기에서 종합 2위를, 김춘미선수는 여자 5000m달리기에서 2위를 하여 은메달을 받았다.

정춘미선수 여자력기 53kg급경기에서 종합 2위를, 김춘미선수는 여자 5000m달리기에서 2위를 하여 은메달을 받았다.

정춘미선수 여자력기 53kg급경기에서 종합 2위를, 김춘미선수는 여자 5000m달리기에서 2위를 하여 은메달을 받았다.

정춘미선수 여자력기 53kg급경기에서 종합 2위를, 김춘미선수는 여자 5000m달리기에서 2위를 하여 은메달을 받았다.

정춘미선수 여자력기 53kg급경기에서 종합 2위를, 김춘미선수는 여자 5000m달리기에서 2위를 하여 은메달을 받았다.

정춘미선수 여자력기 53kg급경기에서 종합 2위를, 김춘미선수는 여자 5000m달리기에서 2위를 하여 은메달을 받았다.

로씨야 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주조 로씨야방면대사관 공사참사가 전송하였다.

로씨야 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주조 로씨야방면대사관 공사참사가 전송하였다.

로씨야 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주조 로씨야방면대사관 공사참사가 전송하였다.

로씨야 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주조 로씨야방면대사관 공사참사가 전송하였다.

로씨야 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주조 로씨야방면대사관 공사참사가 전송하였다.

로씨야 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주조 로씨야방면대사관 공사참사가 전송하였다.

로씨야 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주조 로씨야방면대사관 공사참사가 전송하였다.

로씨야 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주조 로씨야방면대사관 공사참사가 전송하였다.

라이국제개발협조총국대표단 도착

피론 라이스밋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이국제개발 협조총국대표단 7일 평양을 방문하였다. 비행정에서 관계부문 일

로씨야 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주조 로씨야방면대사관 공사참사가 전송하였다.

로씨야 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주조 로씨야방면대사관 공사참사가 전송하였다.

로씨야 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주조 로씨야방면대사관 공사참사가 전송하였다.

로씨야 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주조 로씨야방면대사관 공사참사가 전송하였다.

로씨야 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주조 로씨야방면대사관 공사참사가 전송하였다.

로씨야 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주조 로씨야방면대사관 공사참사가 전송하였다.

로씨야 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주조 로씨야방면대사관 공사참사가 전송하였다.

